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목적
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겠습니다

중대한 질문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어느 대학교수는 첫 강의를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면, 무엇을 물어보겠습니까?” 학생들은 일상적으로 돈이나 물질적인 것에 대해 질문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한 학생이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라고 묻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2001년 9월 11일,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을 공격한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9.11 참사, 살인적인 허리케인, 파괴적인 쓰나미, 그리고 유례가 없던 경제적 붕괴와 같은 엄청난 사건들이 발생한 직후에는 우리 속 깊은 곳에 묻혀 있던 인생에 관한 질문들이 표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충격은 이내 가라앉게 되고, 인생은 언제나 그렇듯 다시 계속 됩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학업, 스포츠, 분주한 사회 생활, 그리고 캠퍼스 활동들로 점유됩니다. 그러나 차분히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순간, 우리가 스스로에게 정직하다면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중대한 질문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담고 표현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학생들은 전례 없는 사회 해방, 기술혁신, 실시간 정보 접근의 시대에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세계를 더 작고, 더 연결된 곳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대륙에서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증가하면서, 참된 세계 평화는 마치 도망치듯 인류를 피해 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제 혼란과 전쟁, 불평등, 그리고 더욱 위험해지는 주위 환경과 사회 폭력은 현대 사회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갖게 합니다.

이런 혼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묻고자 했던 사람은 그 학생만이 아닙니다.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의 고등 교육기관들은 무신론과 도덕적 상대주의(보편적인 도덕 법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론-역자 주), 그리고 난해한 세상 철학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학생들에게 성경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살펴 보도록 장려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미신적이고, 무지하며, 지성이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에 해답을 주는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 우주의 비밀, 사람의 존재에 대한 비밀을 밝혀 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즉 그분을 담고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그릇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마치 장갑이 손을 담기 위한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손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담고 표현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심지어 가치있고 뜻깊은 사회운동에 참여해 보아도, 혹은 반대로 유희에 푹 빠져 즐겨 보아도 우리 속 깊은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위해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만족하는 대신, 목적이 없고, 의미 없고, 공허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내용이 되시기 전까지 우리는 공허하고 목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용이 되기 위해 사람이 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온전하고 죄 없는 삶을 사신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으켜 지셨고,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그분은 공기와 같이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사람에게 유용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릇으로 창조된 우리는 유일한 내용이신 그분 자신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분과 우리는 완벽하게 일치하고, 우리의 내적 공허함은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담고 표현하는, 의미와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

이 인생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이 이것을 읽고 있는 지금도 그분은 당신과 함께 계시며 당신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기도를 함으로써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저를 당신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죽으신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당신을 믿고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주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당신 자신으로 저를 채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무료 신약성경 회복역과 신앙 도서를
WWW.BFA.ORG/KO에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Bibles for America (BfA)는 미국 전역에 신약성경 회복역과 신앙 도서를 무료로 배포하는 사명을 가진 비영리 단체입니다. P.O. Box 17537, Irvine, CA 92623. 888.311.0571

© 2015 Bibles for America.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